

# **2016년 1/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

2015. 12

## 1. 조사목적

- 매분기별로 지역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경기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11. 26 ~ 12. 21
- 조사방법 : 조사표를 바탕으로 한 전화 및 팩스 조사
- 조사항목 : 전반적인 경기, 매출,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에 대한 실적 및 전망
- 조사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350개체
- 조사표 회수 : 187매

## 3.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text{기업경기전망지수} = \frac{\text{호전(증가)표시 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 2016년 1/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 요약

- 부산지역 주요제조업체 187개사 조사

□ 2016년 1/4분기 제조업 BSI는 90을 기록, 새해에도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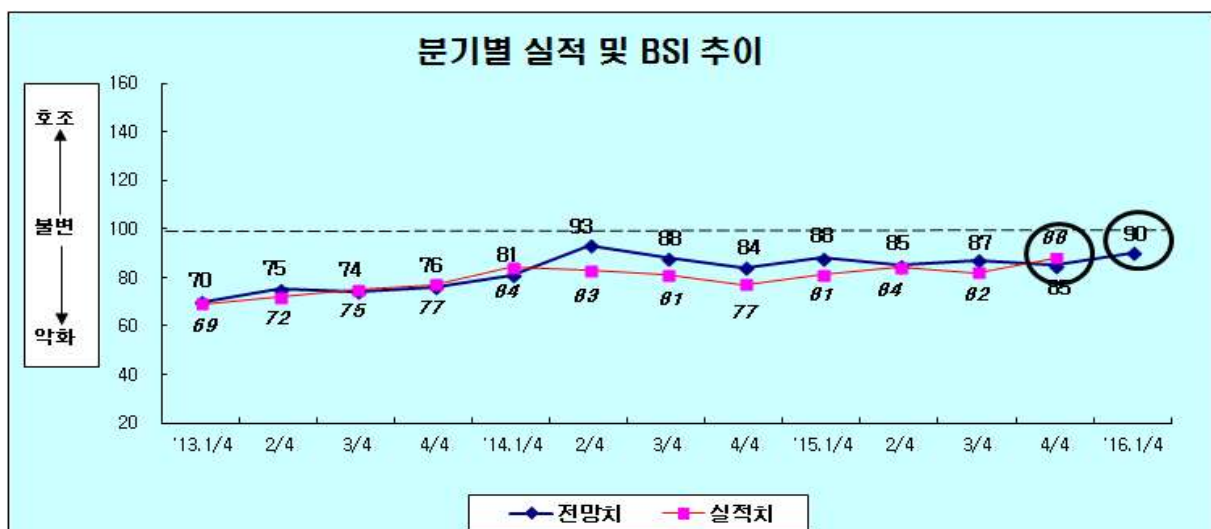
- 내수에서는 소비 활성화 정책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연관 산업 침체로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역시, 지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 일본 시장이 각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엔화 약세 지속 등으로 부진하며, 체감 경기 회복 지연

○ 부문별로는, 영업이익, 매출액, 설비투자 등 전 부문에서 전망치가 기준치 (100)를 하회.

- 특히, 영업이익 부문은 원청업체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 심화, 저가수주 등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기존제품의 출혈 경쟁이 지속되며 영업이익 악화 전망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1차금속, 의복·모피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낮은 전망치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화학고무 업종은 기준치(100)를 상회

- 조선기자재 업종은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해양플랜트 발주량이 감소하며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수 부문에서는 조선사 기 수주 물량의 생산 연기 및 취소 등으로 기자재 수주 물량 감소 전망. 수출 부문 역시, 중국은 조선경기 둔화, 구조조정 지속, 일본은 자국 브랜드 선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15년 4/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88을 기록.
- 2016년 1/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으로는『내수시장 둔화』(55.6%)가 가장 많았음.
  - 이어, 『중국 등 교역시장 둔화』(19.3%),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13.9%), 『미국 금리인상』(7.0%) 순.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소비심리 회복』 의견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창조경제 활성화』 27.3%, 『규제개선』 19.8%, 『노동개혁』 9.1%, 『금융 개혁』 6.4% 등의 순.

# 목 차

|                           |       |   |
|---------------------------|-------|---|
| I . 지역 경기전망               | ..... | 5 |
| II . 부문별·업종별 경기전망         | ..... | 6 |
| 1. 부문별 전망                 | ..... | 6 |
| 2. 업종별 전망                 | ..... | 7 |
| III. 2016년 1/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 | ..... | 9 |
| IV.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 ..... | 9 |

## 1. 지역 경기 전망

□ 2016년 1/4분기 제조업 BSI는 90을 기록, 새해에도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내수에서는 소비 활성화 정책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연관 산업 침체로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역시, 지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 일본 시장이 각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엔화 약세 지속 등으로 부진하며, 체감 경기 회복 지연

○ 부문별로는, 영업이익, 매출액, 설비투자 등 전 부문에서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하회.

- 특히, 영업이익 부문은 원청업체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 심화, 저가수주 등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기존제품의 출혈 경쟁이 지속되며 영업이익 악화 전망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1차금속, 의복·모피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낮은 전망치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화학고무 업종은 기준치(100)를 상회

- 조선기자재 업종은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해양플랜트 발주량이 감소하며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수 부문에서는 조선사 기 수주 물량의 생산 연기 및 취소 등으로 기자재 수주 물량 감소 전망. 수출 부문 역시, 중국은 조선경기 둔화, 구조조정 지속, 일본은 자국 브랜드 선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15년 4/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88을 기록.

## 2. 부문별·업종별 경기전망

### 가. 부문별 전망

□ 영업이익(88), 매출액(91), 설비투자(93)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하회

- **영업이익 부문**은 원·부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 심화, 중국산 제품의 시장 교란에 따른 저가수주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가 절감 노력에 따른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나서지 못하면서 기존제품의 출혈 경쟁이 지속, 영업이익 악화 전망
- **매출액 부문**은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 내수와 수출의 부진 지속 전망. 내수는 소비 진작 정책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불안정한 고용 상황 지속, 연관 산업 침체로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중국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주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
- **설비투자 부문**은 기업들의 수주 부진에 따라 신규 설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에 따라 노후 설비에 대해서 설비 교체보다는 보수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증가. 또한,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면서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부문별 BSI 변화 】

| 구 분     | 실 적       |           | 전 망       |           |
|---------|-----------|-----------|-----------|-----------|
|         | '15.3/4분기 | '15.4/4분기 | '15.4/4분기 | '16.1/4분기 |
| 체 감 경 기 | 82 →      | 88        | 85 →      | 90        |
| 매 출 액   | 79 →      | 93        | 84 →      | 91        |
| 영 업 이 익 | 79 →      | 89        | 82 →      | 88        |
| 설 비 투 자 | 87 →      | 94        | 88 →      | 93        |

## 나. 업종별 전망

- 조선기자재(74), 1차금속(76)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경기 악화를 전망한 가운데, 자동차부품(115), 화학고무(111)은 경기 회복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석유, 가스 시추선 등 해양플랜트 발주량이 감소하며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수 부문에서는 대형조선사 기 수주물량의 생산 계획 연기 및 취소, 저가수주 등으로 기자재 수주 물량 감소 및 단가 인하 압력 심화 전망. 수출 부문 역시, 중국은 조선경기 둔화, 구조조정 지속으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일본은 자국 브랜드 선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1차금속 업종은 신항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철강수요 회복 지연 및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에서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전방산업 경기 악화, 수출에서는 국가 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강화, 단가 하락 지속 등으로 수주가 감소하며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내수 부문에서, 현대차 제네시스 신차(EQ900) 사전 계약 증가, 아반떼, 소나타 등 주력 모델의 판매 호조 지속 등으로 부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출 부문 역시,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신차비중 확대, 중국의 개별소비세 인하(1,600CC급)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 선진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외공장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화학고무 업종은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및 수익성 개선, 최근 전자부품용 코팅 페인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주 확대, 산업용 고무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 등으로 업황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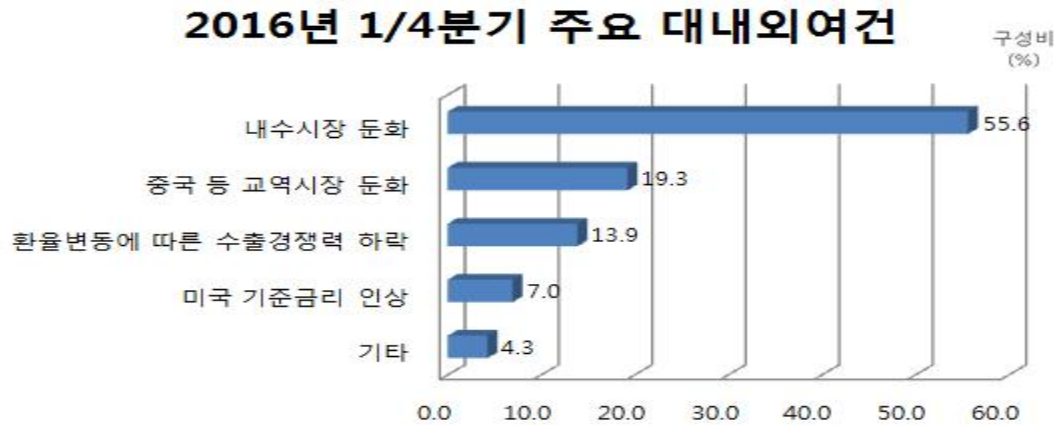


【 업종별 BSI 변화 】

| 구<br>분      | 실<br>적    |           | 전<br>망    |           |
|-------------|-----------|-----------|-----------|-----------|
|             | '15.3/4분기 | '15.4/4분기 | '15.4/4분기 | '16.1/4분기 |
| 음 식 료 품     | 80 →      | 80        | 80 →      | 90        |
| 섬 유 제 품     | 80 →      | 83        | 90 →      | 92        |
| 의 복 · 모 피   | 70 →      | 70        | 80 →      | 80        |
| 신 발 제 품     | 90 →      | 100       | 80 →      | 90        |
| 화 학 · 고 무   | 89 →      | 100       | 94 →      | 111       |
| 비 금 속 광 물   | 80 →      | 100       | 90 →      | 91        |
| 제 1 차 금 속   | 76 →      | 88        | 71 →      | 76        |
| 조 립 금 속     | 80 →      | 80        | 87 →      | 87        |
| 기 계 · 장 비   | 78 →      | 89        | 83 →      | 84        |
| 전 기 · 전 자   | 82 →      | 72        | 88 →      | 82        |
| 자 동 차 부 품   | 95 →      | 105       | 105 →     | 115       |
| 조 선 · 기 자 재 | 79 →      | 79        | 74 →      | 74        |
| 기 타         | 86 →      | 86        | 71 →      | 86        |

### 3. 2016년 1/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

- 2016년 1/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으로는 『내수시장 둔화』(55.6%)가 가장 많았음.  
 - 이어, 『중국 등 교역시장 둔화』(19.3%),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13.9%), 『미국 금리인상』(7.0%) 순.



### 4.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소비심리 회복』 의견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창조경제 활성화』 27.3%, 『규제개선』 19.8%, 『노동개혁』 9.1%, 『금융개혁』 6.4% 등의 순.

